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부활주일 네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네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Constituting Church Conference(전교인대상/ 점심식사후 식당)

5월29일에 Chartering 결정을 위한 Constituting conference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Chartering 안내와 교육이 있습니다.

3. 야외예배: 5월8일 밀러튼 레이크에서 있습니다.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Mothers Day를 맞아서 남선교회 회원들이 수고합니다.

4. No Malaria 후원을 위한 도네이션 야구경기

일시: 4월30일(토) 7시5분(gate open 5:30)

티켓: \$13/이중 \$5이 No Malaria후원합니다.

5.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예배 및 신령직 임명예식, 은퇴예식

오늘오후 4시에 베델교회에서 창립38주년예배와 신령직임명예식과 장로 은퇴예식이 있습니다.

6. 부흥회(웨슬리 회심 기념 부흥성회)

5월22일(금)-24일(주일) 강사: 정용치 목사.

7. 4월속회 안내

4월 속회는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속회입니다.

8. 담임목사 일정안내

Central Valley District Clergy Retreat : 4월18일-4월20일

장소: St. Anthony Retreat Center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04월17일	김규현 목사	김의숙 집사	홍윤기 임동재 구자홍
04월24일	김의숙 집사	김형기 집사	안광빈 김규현 김현덕
05월01일	장영심 집사	최성보 집사	김규현 최성보 김용열
05월08일	이용숙 집사	야외예배	야외예배
5월안내	차경미 임정원	5월촛불점화	구자홍 구경숙



Fresno 후레스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 칼럼

선입관의 위력

스티브 비델프라 ■남자, 그 잃어버린 진실 ■중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아버지와 간극을 메우고 싶은 한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몇 년 사이 아버지에게 전화한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어, 그래! 잘있었냐? 엄마 바뀌주마....”

“아니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돈이 필요하냐?”(혹시 “무슨 사고라도 쳤냐?”)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대학에 보내주고, 먹여 살리느라 힘이 드렸고, 자신이 이만큼 자라게 된것은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술마셨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면서 아버지된 저로서는 약간 씁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의 비슷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 세대가 가장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때는 농경사회를 겪다가 자라면서는 경중공업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어느정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실 때가 되니까 최첨단 사회에/참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들을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대간의 대화와 소통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은 같은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 보니...세대간의 갈등이니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아들처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고마움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도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용기를 내서 표현해도 아버지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간극이 우리 삶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아버지란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한 가정만이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생물학적인 범위를 넘어서 경제적 책임은 물론이고 삶의 모델이라는 다양한 책임을 저야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러기아빠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된 것은 아버지의 역할 중에 경제적 책임만 강조되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 심각한 사춘기나 방향을 맞는 아이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부재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에게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회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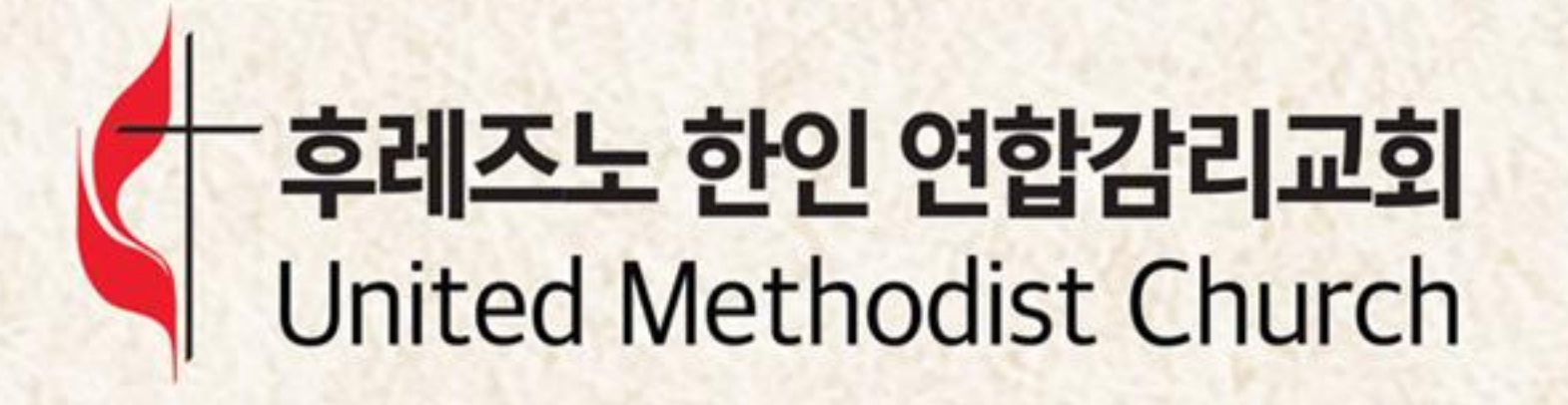
2016년 4월17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후레스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예수님의 제사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www.fkumc.net fkumc@fkumc.net



2016년 4월17일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19장 (통44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김규현 목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김의숙 집사	행 9:36-43	
찬양	찬양대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죽음, 그 두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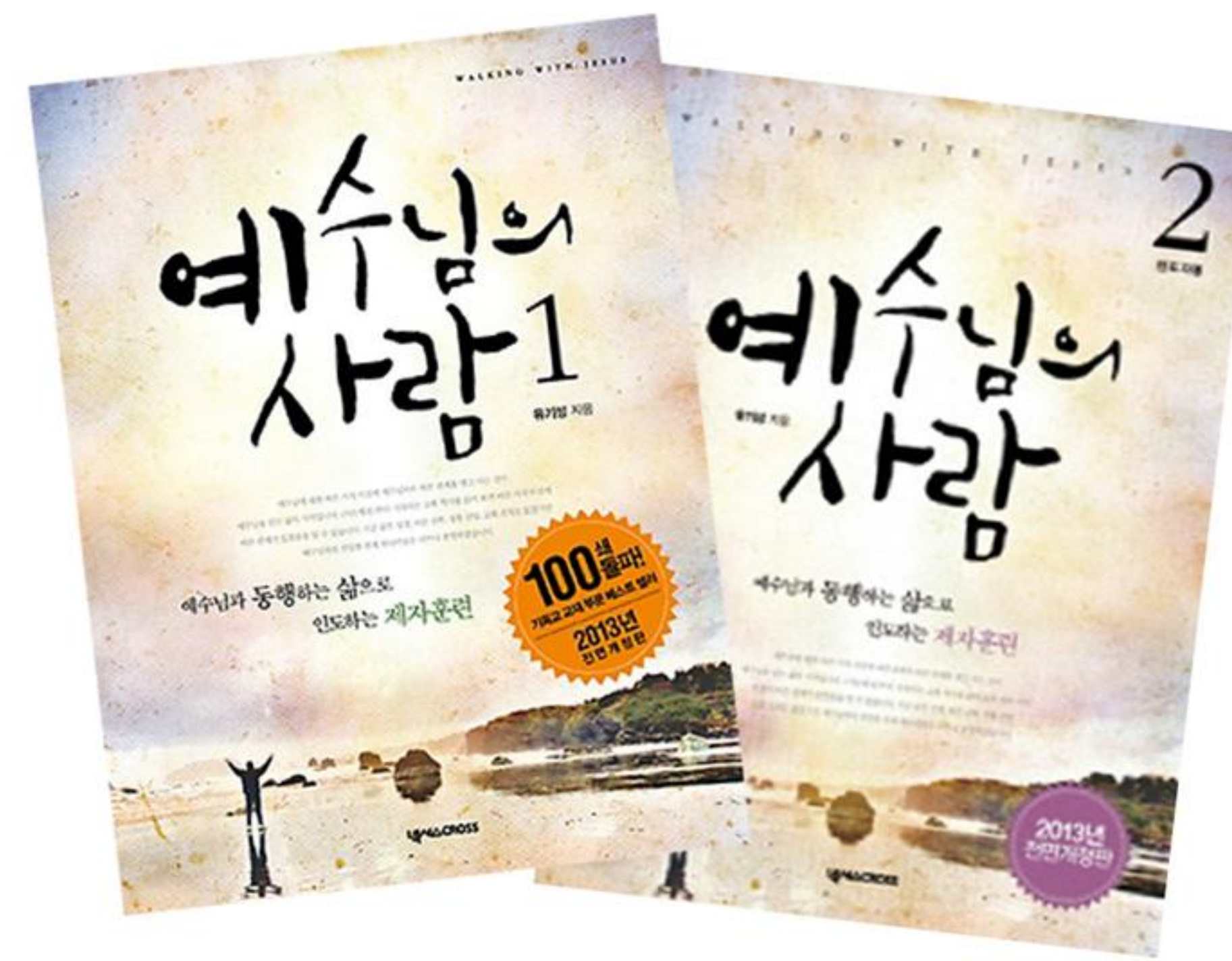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570장(통453장)	
❖ 찬양 Hymn	다함께	1장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t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7시30분	예수님의 사람 회의실
주일예배	1부: 오전08시30분 2부: 오후12시30분	교회력설교
토요아침성경공부	아침7시	예수님의 사람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2.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위하여
 3.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4. 교회학교사역을 위해서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7. 김경호 집사와 이용숙 집사의 빠른 회복을 위해 (4월28일 이용숙 집사수술)
 8. 변영근 선생(한국방문 무사히 잘다녀올 수 있도록)
- 4월생일자
김남국(4/13) 최성보(4/13)
- ❖ 함께 나눔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정윤희 Jim Thomas 구자홍 구경숙 김형기 김현숙 김혜진 엄정순 윤문섭 임경희 이미예 차석준 차경미 최승희 최미란 교회학교 무명
감사헌금	임동재 임정원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김규현 홍윤정 장영심 홍윤기 김의숙
기타	윤문섭 임경희 무명(금식헌금) 재정반환금, 최승희 최미란(영성훈련)
속회헌금	합계 \$1,704.50



2016년 부흥성회

존웨슬리 회심 주간 기념 부흥회

5월20일(금)-22일(주일)
정용치 목사

그분 앞에 설 때

